

대연평 일대의 포유류

김용기·이정분
(생태정보연구소)

요약

대연평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년 6월부터 7월에 실시되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2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1. 서론

대연평(도엽번호: 375072)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수행된 바 없다. 이 조사는 제 5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대연평(도엽번호: 375072)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개의 격자로 나누어 3개 격자에 대하여 1~3회씩 실시하였다(표 1). 조사방법은 “제 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2 회 조사	3 회 조사
E1	—	—	—
E2	—	—	—
E3	—	—	—
E4	—	—	—
E5	2019. 7. 25	—	—
E6	2019. 6. 6	2019. 7. 24	—
E7	—	—	—
E8	2019. 6. 7~8	2019. 7. 25	2019. 8. 7
E9	—	—	—

3. 결 과

3-1. 전체 포유류 현황

대연평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2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E2, E3, E4, E7, E9 는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E5 이 1 종, E6 이 1 종, E8 이 2 종이었다.

표 2. 대연평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고양이	-	-	-	-	○	○	-	○	-
집쥐	-	-	-	-	-	-	-	○	-
합계(총 2 종)	0 종	0 종	0 종	0 종	1 종	1 종	0 종	2 종	0 종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대연평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2 종, 경작지에서 0 종, 수계에서 0 종, 시가화에서 0 종, 도로에서 1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대연평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고양이	○	-	-	-	○
집쥐	○	-	-	-	-
합계(총 2 종)	2 종	0 종	0 종	0 종	1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3). 서식지 유형에 따른 각 종의 서식 흔적수는 표 4 와 같다.

표 4. 대연평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 유형	국명	계 (흔적)	관찰	울음	사체	족적	털	식흔	굴	번식지	배설물	기타
산림 (혼합림)	고양이	8	4		1						3	
	집쥐	2			2							
도로(임도)	고양이	5	3								2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고 찰

대연평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2 종이었다. 이 도엽에서 확인된 포유류의 출현현황을 5 개의 서식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에서 2 종, 도로에서 1 종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연평 도엽은 육지에서 약 80 킬로미터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북한과 인접해서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산림의 대부분은 경작지이거나 군사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야생동물은 고양이와 집쥐만이 확인되었는데, 사실상의 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약 10 여년 전 북한에서 유입된 멧돼지가 한동안 서식하다가 다시 절멸한 사례가 있었는데, 포유류가 육지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박쥐목과 설치목 땃쥐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종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산림성 혹은 수변성 중대형 포유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종합 및 제언

대연평 도엽은 격자 3 개 정도의 작은 도서지역이며, 고도가 낮은 작은 산림이 위치해 있지만, 인위적 시설물들이 많고, 완만한 사면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인도서의 경우 면적이 작을 지라도 청설모, 너구리, 고라니 등의 일반적인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에는 야생동물 특히 중대형 포유류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일부 남아 있는 산림이 있을지라도 인위적 간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과 같은 강우에 의해 야생동물이 떠내려 올 가능성과 정착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19.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 국립생태원.

[부록 1] 사진대지

	
사진 1 대연평 산림 전경	사진 2 산림 전경
	
사진 3 임도 전경	사진 4 임도 전경
	
사진 5 산림 전경	사진 6 산림 전경

	
<p>사진 7 조사지역 전경</p>	<p>사진 8 조사지역 전경</p>
	
<p>사진 9 고양이 배설물</p>	<p>사진 10 고양이</p>
	
<p>사진 11 고양이 배설물</p>	<p>사진 12 집쥐 사체</p>